

카페리 항로 증편으로 경제 활력 기대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취항 10주년·항차 증편 기념식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취항 10주년 및 항차 증편을 기념하기 위한 취항식이 9일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손재위 중국 총영사,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이사, 항만유관기관장,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등 항만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인한 수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에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증편은 항만 물동량 증가와 중국 관광객 유치로 군산항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해운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군산 지역에 외항 선사를 세우고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항차 증편으로 한중간 데일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도내 기업의 군산항 이용으로 물류비가 절감

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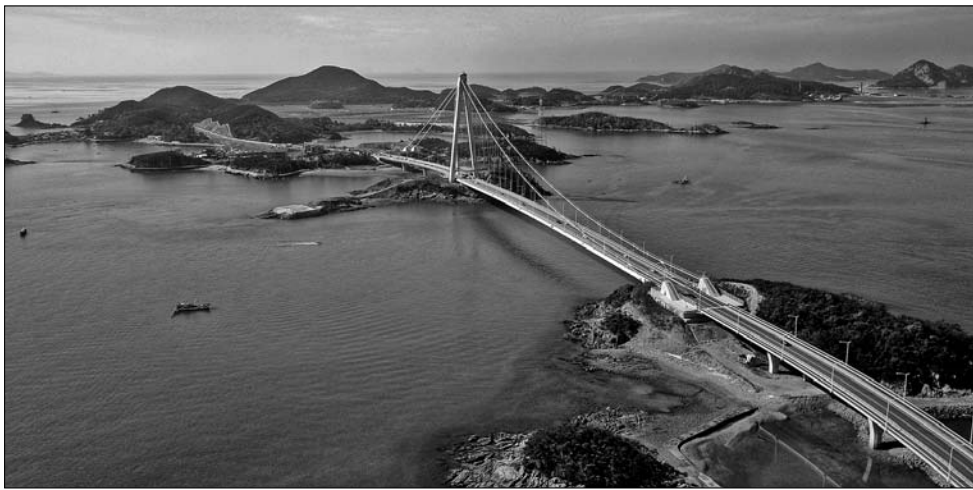
이어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이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 유일의 외항 선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온 결실로 10주년 기념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산항을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200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를 제

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 현재까지 200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전북도 및 해수청과 함께 군산항화물유치단을 꾸려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석도국제훼리(주)는 한중 합자회사로 군산에 본사를 둔 항로 기업이며 2008년 4월 10일에 군산~석도 노선에 최초 취항해 지난 10년 동안 도내 유일한 대중국 수출입 항구로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에 기여해 왔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나해 개통된 고군산 연결도로

고군산군도 관광 편의시설·콘텐츠 개발 박차

2020년까지 90억 원 투입 관광탐방지원센터 조성 등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앞장

군산시가 지난해 고군산 연결도로의 완전개통으로 시작된 관광편의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고군산군도 일원에 2020년까지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관광탐방지원센터와 화장실, 샤워장 등의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섬 곳곳에 그늘막과 쉼터, 포토존을 조성해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으로 고군산의 아름다운 낙조와 신비로운 야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색적인 야간경관 조명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광콘텐츠 역시 대폭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1박2일 시티투어버스를 지속 운행하고 전북권역 광역 시티투어 코스에 선유도를 포함해 운영, 인근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운행도 동시에 시행된다.

또 군산시는 자전거 및 도보 여행객들의 관광민족도 제고를 위해 해안도로와 구불길 정비를 실시하고 스텝프투어 서포터즈 운영과 홈페이지 게시 등 SNS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 각광받는 도보여행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섬에서 육지로 새롭게 변화한 고군

산군도는 특유의 섬 정취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신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과 관광콘텐츠, 다양한 홍보마케팅까지 적절히 추진돼 명실상부한 대표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고군산을 찾게 될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군산의 품격에 맞는 관광 편의시설 조성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힘쓰겠다."며 "고군산군도가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2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12일 개강

군산시는 오는 12일 관내 학부모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사랑과 행복의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를 개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정경이 난 심리치료사이며 교육 전문가인 조벽 교수가 강정호칭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5시간의 실습교육은 이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일정에 의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조성, 부모교육 예약시스템 반응형 웹 구축 등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통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행복 부모학교에서는 부모의 감정 조절을 위한 실습 교육, 성폭력, 약물의 오·남용, 교통안전 등 어린이 유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성격 검사를 통한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훈련, 가족캠프, 부모공감 토크쇼,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한국GM 사태 등의 다소 침체된 분위기로 인해 가족의 화합이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족 사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교내 벤처창업기 나디안바이오 35억 규모 Series A 투자유치 성공

항암제 부작용 제어·노화 관련 신약개발 토대 마련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교내 벤처창업회사로 항암제 부작용 제어 및 노화 관련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나디안바이오(대표 소홍섭/공동대표 곽대환)가 엔젤 투자에 이어 Series 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9일 원광대에 따르면 나디안바이오는 지난 6일자로 NHN인베스트, 디에스엔파트너스, 솔론인베스트, 이룸투자자문 등 국내 주요 바이오 전문 투자사로부터 총 3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약품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6년 원광대 의과대학 소홍섭 교수 연구팀이 항암제 치료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원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내 벤처창업기업으로 설립된 나디안바이오는 지난 1년 반 동안 (쥬웬은 비임상CRO)를 통하여 약물 유효성 및 안



전성을 Rat 및 Beagle dog 등 실험동물에서 평가하는 비임상시험을 수행해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나디안바이오가 개발한 나프토크린계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부작용 제어 기술은 항암제의 부작용은 현저히 낮추면서 기존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로써 나디안바이오는 투자 유치된 35억의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항암제 부작용 제어 치료약물인 WK-0202의 식약처 IND filing 및 임상 1상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보석테마관광지, 상설공연·체험거리 마련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익산 보석테마관광지에서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상설공연 및 각종체험이 마련된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상설공연 및 웨딩의상·보석 상설체험 운영을 시작했다.

상설공연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력 있는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진행되고 웨딩의상 및 보석체험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익산 보석테마관광지 내 보석박물관

은 대한민국 유일의 보석전문 테마 박물관으로 11만여점의 진귀한 보석과 원석을 전시 전시하고 있다.

귀금속과 액세서리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얼팹리스와 어린이를 위한 화석 전시관과 공룡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어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이번 행사가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익산지부, 환경정화 봉사 펼쳐

신천지 자원봉사단 익산지부(지부장 박금성)는 지난 7일 전국체전에 오시는 손님맞이와 쾌적한 익산을 만들고자 '지연아 푸르자 환경정화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봉사단과 시민들 약 400여 명이 오후에 있는 장애인 체전을 위해 사전에 도심 속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수거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모씨(영등동, 41)는 "우리가 환경정화를 깨끗하게 했을 때 익산을 찾는 손님들이 깨끗한 도

시로 기억할 것"이라며 "오늘 봉사로 내 마음도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익산지부 박금성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더 밝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 익산지부는 금번 환경정화봉사 활동 외에도 정기적으로 사랑의 핑크보자기 전달, 사랑의 헌혈캠페인, 쌀기증행사 등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